

영산강 르네상스 신호탄...나주영산강축제 열린다

10월 9~13일 '영산강정원' 서...군소 행사 통합 역대급 퍼포먼스

불꽃 드론 쇼·수중 불꽃 쇼·공연...마지막 날 풀코스 마라톤 대회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유유히 흐르는 나주 영산강을 배경으로 오는 10월 대규모 통합축제가 펼쳐진다.

나주시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2024 나주영산강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통합 축제 공식 명칭을 '2024 나주영산강축제'로 정하고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2024 나주영산강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가을철 열리는 군소 행사를 통합하고 반려동물 축제 등을 추가해 더 새롭고 흥미로운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축제 개최 예정지인 '영산강 정원(영산동 757-1)'은 민선 8기 나주시가 국가정원 지정을 최종 목표로 영산강 저류지에 조성 중인 곳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나주시는 1단계 사업으로 저류지 전체 면적 약 57만평 가운데 약 10만평에 진입로, 테마 정원, 2000여대 이상의 주차장, 축제 광장, 영산강 횡단 보행교 등을 조성하고 있다.

나주시는 또 이번 축제에서 영산강을 주제로 한 개막 특별공연과 화려한 불꽃 드론 쇼, 수중 불꽃 쇼, 인기 가수 초청 공연 등 역대급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군소 행사를 통합 개최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우수한 나주 농산물을 맛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나주농업페스타', 디지털·인터

랙티브·멀티미디어 등 도내 대표 우수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남 콘텐츠페어'가 영산강 정원에서 축제 기간 열린다.

특히 12일에는 지난해 첫선을 보여 호평을 받은 '우리가족 요리왕 선발대회'가 영산강 정원에서 열리고,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선 반려동물 행사인 '영산강 멍멍파크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풀코스(42.195km)를 추가한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가 열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국 마라톤러들의 열정의 레이스가 펼쳐진다.

여기에 '영산강 정원'과 둔치 체육공원에는 수만

평의 코스모스 대향연이 펼쳐져 역사발 길과 더불어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0월 9일 영산강 정원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2024 나주영산강축제'는 민선 8기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비전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교통 혼잡 해소,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음식타운 조성 속도...백종원 대표 두 번째 방문

110억 규모 '남도 맛 1번지' 조성

주변 상가·강진경제 활성화 논의

강진군이 지난 14~15일 양일간 외식업전문기업(주)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강진을 찾아 강진음식타운 조성사업 등을 살펴봤다고 19일 밝혔다.

백 대표의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선정된(주)더본코리아와 함께하는 110억 규모의 '남도 맛 1번지 강진음식타운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강진음식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방문에 이어 두 번째이다. 백종원 매직이 강진 상권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벌써 지역 상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 대표는 방문 첫날인 14일 강진군청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주)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및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진음식장과 오감통 및 주변 상가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일사적인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활성화를 통해 자생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강진군 만들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강진원 군수는 "지금 강진은 백종원 대표님의 마스터 플랜이 매우 중요하다. 강진-광주간 고속도로와 강진역 개통 시점에 맞춰 관광객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남도 맛 1번지 강진음식타운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



강진원(왼쪽) 강진군수가 백종원(왼쪽 두번째) (주)더본코리아 대표와 함께 강진음식장을 찾아 강진음식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 대표는 "강진은 대학시절에 미식 여행을 많이 왔던 곳으로, 상재 들고 들어오는 푸짐하고 저렴한 한정식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예산이 내륙의 거점으로 첫 출발지가 되었다면 바다를 접한 소도시의 특성을 살린 강진의 매력을 살리고 지역 상인들과 충분한 스킨십을 통해 모두가 윈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 함께 키워가는 음식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도 맛 1번지 강진음식타운 조성사업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민간자본 등 세 분야로 구분된다. 하드웨어에는 ▲강진음식장 수산동 리뉴얼 ▲오감통 특성화 식당 리뉴얼 ▲오감관측 이벤트 광장 정비 ▲남도음식 사관학교 신축 등이 포함됐다.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운영조직화 ▲상품개발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이 추진된다. 민간자본은 인적자원 및 운영비 등을 담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해양치유지구 지정·지역계획 수립

지난해 10월 착수 용역 중간 보고회

함평군이 최근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 해양치유 지구지정·지역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의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그간의 의견 검토 사항을 공유하며, 함평

군의 해양치유 산업 발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평군은 2023년 6월에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 전 해역·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0월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2025년에 해양치유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해양치유 조성계획을 최종 보완해 해양수산부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함평군 해양치유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하루 1천병 '순삭'...나주시 '생수 나눔 냉장고' 큰 호응

산책로 3곳에 설치 1인 1병 무료

"시원한 생수 한 병에 더위가 짝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제법 행복이죠."

나주시가 역대급 폭염에 대응해 올해 여름부터 처음으로 주요 산책로에 설치한 '생수 나눔 냉장고'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매일 냉장고에 준비해 둔 생수 1000병이 모두 소진될 만큼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시는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빗가람호수공원, 한수제 물레(데크)길,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세 곳 산책로에 '생수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냉장고에 준비된 시원한 생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한 사람당 한 병씩 마실 수 있다.

타 지역에선 생수를 싹쓸이하는 양심 불량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나주시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1인 1병 이용 원칙'을 지켜 나가고 있다.

무료 나눔 생수는 친환경 재활용률이 높이기 위해 전량을 무라벨로 공급해 비닐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냉장고 주변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했다.

나주시는 오는 9월13일까지 무료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



나주시가 여름철 무더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주요 산책로에 설치한 '생수 나눔 냉장고'. (나주시 제공)

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 여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618곳', '그늘막 222곳'을 설치하고 '살수차 5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쿨도시, 부채 등 다양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 여름 생수 나눔 냉장고 설치로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체감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

강진군 하맥축제 기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관리심의회 열어 안전대책 논의

맥주를 주테마로 하는 강진하맥축제 기간(29~31일)에 집중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된다.

강진군에 따르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은 최근 하맥축제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안전문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이번 축제는 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인만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축제장인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음주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강진군은 음주 후 귀가가 어려운 관광객을 위해 종합운동장 풋살장 옆에서 무료 캠핑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1박당 30팀, 축제 기간 3일간 90

팀을 1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강진터미널을 시작으로 강진군청을 경유해 축제장으로 도착하는 45인승 무료셔틀버스 4대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상시로 운행할 계획이다.

금호고속과 협력을 통해 평상시 오후 8시 40분이 막자인 광주행 버스를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오후 9시 40분 시간대 버스를 추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축제를 촉매제로 관광객들이 대거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외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하맥축제가 즐거운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예의없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전통술, 남도 우리술 품평회 수상 휩쓸어

대상 포함 9개 중 3개 상 수상

담양에서 만들어진 전통술이 최근 열린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9개 수상 제품 중 대상을 포함해 3개의 상을 휩쓸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담양군은 담양산 막걸리 '대대표(blue)'가 2024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고의 우리술로 선정, 대상을 받았으며 증류주 '추성주'가 최우수상, 약청주 '천년담주'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가 주관해 전남도 농산물로 만든 우수한 남도 술을 선정·시상하는 행사다.

탁주와 증류주, 약청주, 기타,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품평회에는 전남 24개 양조장에서 37개 제품이 출품됐으며, 주류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종합대상 1개 품목,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 4개 제품(4개 주종 중 총 9개)이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죽향도가의 '대대표(blue)'는 우수한 유기농 대소밭은 쌀에 천연 발효를 사용해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맛과 향 등에서 평가위원의 극찬을 받아 종합 대상을 받았다.

또 농업회사법인(주)추성고을의 '추성주'는 담양 쌀과 11가지 한약재로 100일 이상 발효시켜 증류하고 저온으로 숙성해 높은 도수임에도 부드러운 목 넘김과 그윽한 맛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약청주 부문에서도 죽향도가의 '천년담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죽향도가 '대대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올해 전남 고품질 쌀 브랜드 평가 대상이자 14년 연속 수상을 이어온 명품 대소밭은 쌀로 만든 막걸리 대대표의 깔끔하고 깊은 맛을 느껴보시길 추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문화관광재단 '화사로 프로젝트' 진행

화순여행 새로운 방안 제시

(재)화순문화관광재단이 화순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사업인 '화사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화사로 프로젝트'는 '화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화순의 재발견'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그룹의 여행자들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화순을 여행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취향별·맞춤형 여행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팸투어와 연계해 기존의 관광지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외국인인과 인플루언서, 장애인 여행가, 가족으로 구성된 총 네 그룹의 여행자들이 화순을 여행하는 1박 2일로 진행되며 체험과 트래킹, 캠핑, 미식여행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첫 번째 투어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9명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화순을 여행한다. 첫째 날은 9명이 한

팀으로 여행하고, 둘째 날은 세 팀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코스 여행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투어가 예상된다.

운주사, 화순적벽, 개미산 전망대, 꽃길 음악분수대 등 화순만의 매력과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관광지를 포함했다. '양참사막'을 속속로 지정해 한국의 고택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깃들정'에서 전통악과와 떡 만들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다.

특히 이번 투어를 통해 화순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 교통 편의성, 다국어 안내판 등 화순의 인프라 상태를 분석하고,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화순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브랜드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화순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화사로 프로젝트는 10월까지 총 4번의 투어로 진행될 예정이고 모든 과정은 사진과 영상 등으로 기록된다"며 "재단은 올해 사업이 종료된 후 여행안내 지도의 형태로 공개 및 배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